

대청호 환경 지킴이 김기동씨

1980년,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양산을 모아 직접 물을 떠 마시던 추억을 땀에 배앗겼다. 물 속에 있는 고향이 그리워 배를 타고 주변을 맴돌다 어지럽게 떠다니는 쓰레기를 보니 고향을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화가 치밀었다. "그때 고향을 다시 찾자. 모깃불 지피며 평상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던 그 시절의 고향집 앞마당은 다시 볼 수 없어다. 냄새나는 오물로 고향이 더럽혀지는 것만은 막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며 20여 년 동안 대청호의 쓰레기를 치우는 대청호 파수꾼 김기동씨(53).



김기동씨가 보트를 타고 대청호의 환경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하루 종일 쓰레기와 씨름하다 보니 온 몸은 악취와 얼룩으로 뒤범벅이 되고 발바닥과 손은 유리에 찰리고 긁혀 성한 곳이 없었다. 흥수에 휩쓸려 내려온 폐지며 닭들의 시체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 준적도 많았다. "쓰레기나 치우는 아빠가 정말 창피해요. 친구들이 '네 아빠 청소부지'라며 놀린단 말예요." "여보. 이제 돈 안 되는 일은 그만하고 우리도 도시로 나

재활용 쓰레기 모아 판매, 불우 노인들 도와 예불드리며 효도할 수 있는 실버타운 '꿈'

가 살아요." 이렇게 자식과 아내의 원망과 성화를 쓰레기 더미와 함께 묶은 것이 벌써 20년을 훌쩍 넘겼다.

이제는 평생의 업(業)으로 생각한다. 김씨는 "돈을 생각하면 절대 못하죠.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하루 세끼 더운밥은 먹으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들 둘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그것도 고맙고요. 이제는 두 아들 녀석과 아내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니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대청호는 해마다 홍역을 앓는다. 장마와 태풍으로 시뻘건 황토물에 쓸려 내려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페트병, 스티로폼, 강통, 냉장고, 통나무 등)으로. 어디 이뿐이라. 월척이 많아 주말이면 수 백 명의 낚시꾼들이 몰려드는데 이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다. 자칫 방치했다가는 충청권 주민 200만 명이 마시는 상수원이 악취 풍기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말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다.

김씨가 대청호에서 건져내는 쓰레기는 1년에 1천 가마, 4톤 트럭으로 250대 분량이 넘는다. 이런 그의 선행이 입 소문을 타고 대청호 관리사무소에 전해져 1989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그를 '대청호 수질감시원'으로 공식 위촉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생업까지 팽개치고 매일 쓰레기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누구라도 쉽게 나서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대청호에 쌓이는 쓰레기를 김씨 혼자서 치우기에는 너무 많다.

1984년 맨 처음 남편이 이 일을 시작할 때 부인 한명옥씨(49)는 돈도 되지 않는 일에 매달리는 남편을 극구 말렸다. 그렇게 한가하면 어디 가서 품앗이라도 해서 돈을 버는 게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기 돈까지 써가며 쓰레기를 치우는 김씨를 비웃기만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런 주위의 눈총에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쓰레기 수거 작업에만 몰두했다. 쓰레기를 담은 포대와 쓰레기를 묶어 모으는데 필요한

물이 맑아야 사람도 맑아집니다

20년간 매년 쓰레기 1천가마 수거



김기동씨가 수거한 쓰레기들을 대청호 어귀 쓰레기 집하장으로 옮기고 있다.

갈퀴 등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었다.

"자기 집 안방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그것을 치울 거예요. 바로 제집 즉 고향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것 뿐입니다. 남들이 저에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혀를 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을 <천수경> 염송으로 이겨냈다. 주위에서 노골적으로 비웃을 때마다 그의 <천수경> 소리는 높아만 갔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들을 '팍부(부처님한테 팔았다는 뜻)'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는 어릴 적부터 절에서 염불하기를 좋아했다.

"특히 <천수경>을 좋아 합니다. 아마 제가 대청호 쓰레기 줍는 일과 인연을 맺은 것도 이웃을 위해 자연을 내 몸과 같이 보살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묵묵히 <천수경>을 외우며 대청호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한지 몇 년쯤 지났을까. 가족과 이웃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부인과 자식들도 팔을 걷어 붙였다. 남편 혼자 배를 띄워 나가는 것이 불안하고 농약병, 비닐 등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를 혼자 치우는 것을 안쓰럽게 여긴 부인은 1992년부터 손을 보태기 시작해 그 역시 전국에서 첫 여성 수질감시원으로 위촉됐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자원재생공사에 위탁, 처리해 얻은 수익금으로 10년 전부터 조출하나마 불우한 노인들을 돕고 있다. 또 1주일에 서너 번씩 틀나는 대로 보은군 읍내에 위치한 성심양로원을 찾아가 자원봉사도 한다. 양로원 가족들의 빨래며 화장실 청소는 모두다 그의 몫이다. 김씨는 성심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천수경 거사'로 통한다. 몸도 마음도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에게 구성된 목적으로 "정구업인전 수리수리 마하수리"하며 <천수경>을 소리내 외우면 양로원은 어느새 법당이 된 듯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 경건하게 변한다. 성심양로원의 김말연(75) 할머니는 "김기동씨 오기만 하루 종일 손뼉이 기다리는 구만유. 재미난 입담하며, 안마도 잘해 주고 거기다가 <천수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스님해도 되겠시유. 참말로 아들보다 낫단 개라"라며 연신 김씨 칭찬에 힘이 마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사비를 털어 낚시터 주변 다섯 곳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또 해마다 자연보호의 날에는 폐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인근 각 면에서 활동하는 자연보호협회원들에게 조끼와 모자를 구입해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숨은 선행과 봉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기동 씨는 지난 1992년 환경부 장관 표창 등 각계 단체들이 주는 20여 개의 표창을 받았으며 2001년 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도 받았다. 부인 한명옥 씨 역시 1994년 SBS자원봉사대상 등 수많은 환경 관련 표창을 받았다.

김씨 부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바로 10년 안에 부지런히 돈을 모아 20

명 정도의 인원이 살 수 있는 무료실버타운을 세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 부모님이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은중경>의 말씀을 되새겨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그곳이 바로 불국토가 아닐까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 드리며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랜 꿈입니다. 반드시 10년 안에 이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주웠던 것은 대청호의 냄새나는 쓰레기가 아니었다. 김기동 씨는 <천수경>을 벗 삼아 오늘도 대청호에서 맑고 향기로운 행복을 견져 울리고 있다. 쓰레기 없는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글=노병철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는 김기동씨.



모든 감정을 탁 봐버려라!

을 조계사에서 3개월간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서 11명의 선사들이 펼친 법문을 모았다.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두는 법, 선 수행의 요제 등을 주제로 선의 경수와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종양일보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남불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조선일보

- 교유 스님-선의 본질과 의미 ■ 무어 스님-화두 두는 법 ■ 대연 스님-선과 계단 ■ 환주 스님-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마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관 스님-선 수행의 요제 ■ 해국 스님-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웅 스님-한국인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연 스님-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경 스님-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백법법문 법공 스님-경어·만공 선사의 가르침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禪 너는 누구나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여시아문 3주 연속 베스트셀러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역음

최저의 책



신국판 / 420쪽 / 차차석 講解 값 10,000원 / 여시아문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어삼백칙

(禪語三百則)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선어삼백칙 - 주제가 있는 선 이야기 삼백 가지'는 역대 선지식들의 수행담과 득도를 향한 열정이 담긴 핵심적인 어록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스스로 불성을 지내고 있다',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된다', '한 울도 걸리지 않는다' 등 주제별로 선 수행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무조건 '어렵다'고만 느껴온 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